

第59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市民福祉委員會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2月1日(土) 午前10時

場 所 第2小會議室

議事日程

1. 業務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業務報告의件(保健所所管)(城北區廳長 提出) 1面

(10時04分 開議)

○委員長 吳榮作 존경하는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0만 성북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시민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2대 후반기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염작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서로 합심하여 우리 50만 성북구민의 보건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97년 올 한해도 시민복지위원회와 보건소가 중지를 모아 50만 성북구민에게 질과 양이 풍부한 보건건강사업이 골고루 나뉘지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業務報告의件(保健所所管)(城北區廳長 提出)

(10時05分)

○委員長 吳榮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委員長 吳榮作 김영식위원님.

○金榮植委員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유인물이 있으니까 대충 큰 문제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朴景錫委員 이게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이고 하나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상하게 듣는 것이 낫겠어요.

○委員長 吳榮作 김영식위원님께서 시간 절약상 중요한 업무만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박경석위원님께서서는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사무국에서 위원회 조정을 너무 짧은 시간을 배정해가지고 저희가 11시까지 회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 점을 널리 양지해 주시고 회의가 11시에 마치게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李龍變委員 김영식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作 그러면 김영식위원님 발의에 이용섭위원님 동의하시죠?

박경석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죠?

○朴景錫委員 끝내죠 뭐. 그렇잖아요. 금년도 업무보고입니다. 끝내는 것도 좋지만, 동의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현재 있는 대로 소장님께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읽는데 큰 시간도 안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줄이자면 뭘 감추자는 거예요, 뭐예요? 참 너무하네요. 끝내죠, 뭐. 주요업무보고 했으면 됐잖아요. 그 이상 할 것 뭐 있어요?

○李龍燮委員 아니 지금 위원들한테 책임추궁하는 겁니까?

○朴景錫委員 책임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나쁘다는 겁니까?

○李龍燮委員 끝내자고 하는 것은 안되죠. 중요업무만 하자는 건데, 여러 사람이 뜻을 모으면 되잖아요. 왜 혼자 얘기만 하십니까? 나는 동의한다고 했고,

○朴景錫委員 동의가 한다고 하고 또 동의가 나오고 하니까 나도 속이 상해서 하는 얘기에요.

○李龍燮委員 속이 상하지만 혼자 얘기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朴景錫委員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내소란)

○委員長 吳榮作 이용섭위원장, 박경석위원님,

○李龍燮委員 지금 동의를 해서 동의제청을 한다고 하는데 끝내자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좋다면 좋고, 안한다면 안하는거지,

○委員長 吳榮作 지금 회의진행이 너무 소란한 관계로 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時11分 停會)

(10時17分 續開)

○委員長 吳榮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간략하게 중요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吳榮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金榮植委員 보건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보건 분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1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분소를 냈는데 여기에서 좀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께서는 분소 보다는 분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지고 우리 국민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몇가지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외에는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 曹宗希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作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保健所長 曹宗希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분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있고요, 아무튼 올 해에는 아마 보건분소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하면 좋겠지만 물론 인력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 정도에서 더 늘리는 것은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계속 질적으로 이 사업이 정착돼 나갈 수 있도록 당분간은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좀더 다른 프로그램을 더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植委員 분소 개관예정은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保健所長 曹宗希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물이 3월말에 준공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한 빨리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있고

4월이나 5월 중에, 빠르면 4월말쯤에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마 5월초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金榮植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作 다른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李龍燮委員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실시, 5월달, 9월달까지는 2시간 연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방역하는데 모기가 죽습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예, 죽습니다.

○李龍燮委員 그런데 작년에 방역을 좀 덜했는지 모르겠지만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비상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방역대책을 세워가지고, 모기가 안죽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약물을 어떻게 더 강화해서 인체적으로 나빠서는 안되겠지만 최소한 모기라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 비상근무 한다고 하면 모기라도 죽일 수 있도록 방역을 해야 할텐데 그런 민원이 작년에 모기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保健行政課長 嚴運淑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의 농도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4배 양을 확대해가지고 모기, 파리 등 해충의 박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龍燮委員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차가 안들어가는 데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保健行政課長 嚴運淑 예,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데는 수동식으로 해가지고 보다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李龍燮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作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세요.

○任泰根委員 방금전에 이용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 소독문제에 대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을 방역을 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嚴運淑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 하실 때 보셨겠지만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15개의 추가 연막소독기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2개의 수동방역기를 추가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분무소독은 보다 강화해가지고 효과가 분무소독이 연막소독 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보다 높은 소독 방법을 주로 취하고 연막소독도 주민들이 충분한 효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분무소독을 하겠습니다. 수동방역기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은 수동방역기에 의존해가지고 그 효과를 높이도록 애쓰겠습니다.

○任泰根委員 그리고 본위원이 감사시에 방역소독기 강조를 소장님한테 질의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 기계는 몇 대나 구입하실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방역기가 고장나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保健行政課長 嚴運淑 17개를 추가 구매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미 동으로 배급된 데는 고장났으면 저희가 수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부터 저희가 신고를 받고 항상 절기가 시작되거나 끝날때 기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소독이 끝난 후에 점진한 상태에서는 동에서 보고받기로는 기계상태가 양호하고 직접 가서 점검했을 경우에도 기계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빨리 연락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任泰根委員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고쳐와가지고 한 이를 해보면 바로 또 고장나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좀 교체 해주십사, 새것으로.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였고,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 약사지도 감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일요일이 되다보면 약국이 대부분 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은데, 약국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전부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 주민들은 어디 가서 약을 사느냐, 그런 폐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醫藥課長 黃元淑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니다.

약국들이 일요일마다 당번약국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해서 1/4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1/4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등에서 10개가 다 쉬지는 않을 겁니다. 10개 중에서 2 약국업소는 문을 열게 돼있습니다.

○任泰根委員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나면, 저희 등에 약국이 있는데 일요일이면 하나 밖에 문을 안열어요. 홍보를 해줘야 되겠네요.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사회에다 강력히

○醫藥課長 黃元淑 예, 약사회에 저희들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任泰根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요즘 약국을 보면 약사가 있는데도 대신해서 파는 약국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좀 지도 점검 하신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시오.

○醫藥課長 黃元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作 다음 박경석위원님.

○朴景錫委員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업무가 막중함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마는 제 입장에서는 좀더 보완을 해서 우리 50만 구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만 당부를 드리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약국관리하는 부분에서 면허가 없는 분들이 마치 가게의 어떤 일반상품을 파는 식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주민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차마 말을 못하고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이런 것들도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면허가 있는 분들이 약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검진업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감사기간동안에 저희들 몇몇 위원들이 검진을 잘 받았습니다. 이런 업무를 할때에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건강검진 의뢰서를 보면 진찰소견이 있습니다. 물론 학술적으로 표기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필기체 영어로 해놓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적어도 인쇄체라도 해놓으면 콘사이스라

도 보고 자기 진찰 소견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토를 달아주셨으면 하고요, 바쁜 시간에 검진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너무 미미한 부분까지 지적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름이 앞장 다르고 뒷장 다를때에 과연 검진을 받은 사람이 얼마만큼 우리 보건소를 신뢰하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같이 해봅니다. 아까 성병관리 사업 부분에 보면 등록관리자난에 보면 접객부가 100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밖에 안되는건지, 그런 부분도 좀 조사가 철저히 돼서 정확한 숫자는 못나오더라도 근사치라도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탁상공론식의 행정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으로써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성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학교 당국에 부탁을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물론 교육을 하겠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아닙니다. 저희가 올 해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보건교육을 나가려고 해도 학교에서 여의치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시간에 맞게끔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강사도 오고 해서, 이런 것을 전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초빙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朴景錫委員 맨마지막으로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지금 관내에서는 요소요소에서 우리 보건소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이 있을 뿐만 아니고 예방접종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겠지만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방송을 통해서 매가폰 방송이라도 해서 어린 아동들이 적정기에 예방접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作 다음 이대일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李大一委員 보건소장님께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보건교육사업에 홍보내용이 적혀있거든요. 5,400만원 사업예산이라는데, 물론 건강책자, 건강수첩 제가 읽어봤습시다마는 제가 감사시에도 했습시다마는 일본같은 데 가보면 알루미늄 사시같은 게시판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안내를 해가지고 각 서민촌에 붙여두려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반상회보나 건강책자 이게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민들이 좀 많은 동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약사 지도 감시인데, 양약은 그렇고 한약업소에 대해서 무슨 지도 감시한 게 있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지금 모르는 서로 연고없이 한약방에 가가지고 약을 지었을때 거의 80%가 전부 중국산이래요. 그런데 대해서 무슨 감시해볼 계획이 있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알루미늄 게시판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셨고, 저도 한번 예산을 올린적이 저희가 했었는데 그런 홍보하는 것을 보건소 따로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저희가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노력을 하겠고요, 다음에 한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즘에 새로운 지침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몇 가지 처방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정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아주 정세하게 돼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한약을 봐서 잘 모르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약사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한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약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수입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산지가 표시돼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大一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作 다음에 김민석위원님.

○金珉奭委員 김민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각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년에 했으니까 올 해도 예를 들어서 어디어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만 써있고 너무 광범위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 얘기하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방법론이 하나도 안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년에 성병관리사업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쪽에서 좋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참 성병에 대한 홍보 및 계몽강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달아주셔야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년에 해온 것을 또 하는 과정에서 하겠다 하는 식만 나와있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니까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해보겠다 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다 써놨는데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실 의원들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 어려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업무보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활보호자에게 작년엔 10만 원을 주었는데 12만 원을 줘야 되겠다하면 금방 우리 구의원들은 감이 안 와요.

12만원 가지고 부족하겠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뭐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만 나와 있고 방법론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가 예년에 했던 것에 그대로 비중을 둔 느낌이 너무나 많았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뭐냐면 4페이지에 보면 보건업무 분소 설치에 대해서 진료를 하는 곳이 거의 없죠? 홍보 위주죠? 건강홍보 위주겠죠?

○保健所長 曹宗希 보건 교육위주가 많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체력측정이라든가 건강진단이 위주입니다. 진료는 노인건강교실에서 한방지료를 할 예정입니다.

○金珉奭委員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보건 분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8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거의 똑같은 것이 분리된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왕 업무보고를 하실려면 위원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첨가를 시키더라도 이해가 가야 되는데 너무 좀 광범위하게 하겠다는 것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기재가 되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作 홍성진위원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洪性湊委員 16번째 환자진료 가운데 서울시 거주자 중 의료보험 카드 소지자에 한 해가지고 65세이상 노인들이 무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에 보면 의료보험 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에 거주하면 65세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상 진료인원이 축소됐는지, 축소됐으면 그 배경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曹宗希 지금 여기 표현이 조금 저변하고 바뀌어서 그런데 내용이 65세 노인은 전부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洪性湊委員 의료보험 카드를 소지 안 했더라도 다 무료진료 대상에 포함됩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의료보험카드를 지금

○醫藥課長 黃元淑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카드 소지하신 분들만이 65세 이상은 무료로 진료하실 수 있습니다.

○洪性湊委員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서울시 거주자면 무료진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험,

○醫藥課長 黃元淑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해야만이 무료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洪性湊委員 과거에도 그래 왔고 앞으로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해야지만 무료진료 가능하다고요.

○醫藥課長 黃元淑 네, 그렇습니다.

○洪性湊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태근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任泰根委員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임태근

위원입니다. 각동에 보면 노인정과 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없는 분들이 노인정이나 유아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출장진료를 할 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다음에는 6페이지에 보면 성북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구성 '97년 2월달에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선진국 공공 보건 사업의 해외시찰 어느 분이 나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曹宗希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나 유아원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방문 진료라든가 저희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동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팀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무료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任泰根委員 1년에 몇 번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曹宗希 저희가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여러 군데가 보니까 저희가 스케줄을 짜가지고 저희가 들게 되는데 지금 주로 노인정 보다는 복지관 쪽에 모이기가 쉽기 때문에 복지관 쪽에서 저희가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의료계획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嚴蓮淑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월 까지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구성 인원이 지침과 법령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교수를 4~5인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약단체로 3~4인, 또는 2~3인 구성하기로 되어 있고 관계 공무원이 2인 정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대표가 1명 내지 2명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의 구성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해 가지고 지역 주민 1인, 관련연구단체 위원이 5명, 그다음에 관련단체가 2명, 공무원이 2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월 중으로 구성해

가지고 1차 심의회와 위촉을 2월달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공공사업 해외시찰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공공보건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비슷한 법령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또 우리보다 나은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국가 개입이 약 의료사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북구 여러나라를 시찰해가지고 우리가 4~5년 후 2000년대에 보다 나은 주민 보건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될 것인가를 시찰하기 위해서 보건소 공무원이 한 3~4명 그 외에 용역발족하게 된 연구기관의 참석하게 된 연구원들이 2~3명 해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해외시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吳榮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며 보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이 업무 보고하신 대로 알차고 보람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8分 散會)

○出席委員 11人

吳 榮 作	洪 性 溱	金 南 孝
金 榮 植	朴 景 錫	李 大 一
李 龍 燮	金 光 植	金 珉 奭
安 敦 洙	任 泰 根	

○缺席委員 2人

崔 哲 模 權 赫 騏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金 鎮 永

○參席公務員

保 健 所 長	曹 宗 希
保 健 行 政 課 長	嚴 蓮 淑

保 健 指 導 課 長
醫 藥 課 長

具 明 子
黃 元 淑